

www.eai.or.kr

EAI 컨퍼런스 “쿠데타 이후, 미얀마 민주주의의 미래”

The Military Coup and Future of Democracy in Myanmar

**제1세션. 미얀마 총선(2020) 후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

**Session I. Presentation on the Post-General
Election Survey in Myanmar (2020)**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EAI 컨퍼런스 “쿠데타 이후, 미얀마 민주주의의 미래”

제1세션. 미얀마 총선(2020) 후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사회: 손열(EAI 원장, 연세대 교수)

패널: 배진석(경상대 교수), 장준영(한국외대 교수), 정한울(한국리서치 전문위원)



Q. 손 열: 양극화된 미얀마 정치 지형으로 쿠데타 전 미얀마의 선거 민주주의도 위태로울 것. 이번 쿠데타 사태로 미얀마 내 선거 민주주의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보는지?

A. 장준영: 군부 시대가 열릴 경우와 민주주의를 회복하여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 등 민주주의 진형이 들어설 경우의 두 가지 상황을 예측할 수 있음. 첫 번째 경우(군부 집권)는, 표본으로 태국 선거제도를 가져와 대대적으로 선거제도를 고칠 가능성이 큼. 의회의 25%가 군부에 할당된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소선거구제도를 중선거구제도로 대체할 것임. 그러면서 소수 종족 정당(지역정당)들이 지방의회가 아닌 연방의회로 편입될 수 있음. 군부가 지역정당들을 포섭하는 전략으로 갈 것임. 이럴 경우 NLD는 차기 총선에 참가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큼. 후자인 경우(민주주의 회복)는 크게 기대할 수는 없음. 이유는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고문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크며, 그녀를 대체할 대안 인물이 없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구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 수치 복귀 후 NLD가 지금까지 해왔던 실책을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에 대해 단기간에 긍정적으로 전망되지 않을 것. 민주주의가 회복되더라도 정당 정치의 발전이라는 것은 몇 차례의 선거를 거치며 대안 정당, 대안 인물이 등장할 때 가능할 것임.

Q. 손 열: 이번 쿠데타가 예견된 사태였는지? 현지의 분위기를 지켜봐 온 입장에서 어떻게 분석하는지? 또, 다섯 개의 미얀마 시민사회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그들이 쿠데타에 대한 우려를 해왔는지?

A. 정한울: 올해 1월까지 진행했던 세미나 준비과정에서 쿠데타 징후까지는 아니지만 카친 주 기반의 협력 기관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는 있었기에 설문 문항에 관련 질문을 다수 포함했음. 최근 다시 자료를 찾아보니 카친주는 당시 이미 불안정했다는 것을 발견. 그 불안정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음.

A. 장준영: 쿠데타가 예정된 것인가에 대한 답변. 지금의 쿠데타는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군 총사령관의 개인적인 욕심과 하나의 이익 집단으로서의 군부의 기득권 유지 두 개로 요약할 수 있음. 그 두 가지의 공통점은 국가 분열 방지를 정책 개입의 명분으로 내세워 왔다는 것. 미얀마는 연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쪼개질 경우 일부가 중국, 태국으로 편입될 수 있고, 버마족도 언젠가는 모두 흡수되어 사라질 것이라는 논리임. 민 아웅 흘라잉 군 총사령관의 이번 쿠데타 이전인 2016, 2017 년에도 쿠데타가 암시된 적이 있음. 연방의 분열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2017년 로힝야 학살 사태 이후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직하면서 위원회에 외국인 포함 여부로 논란이

있었으며, 군부가 외국인 배척을 시도했었음. 코피 아난 (Kofi Annan)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으로 들어가 관철시켰으며, 당시 쿠데타가 일어날 뻔했으나 겨우 봉합함.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 자체가 군부에 큰 위기감을 부여함. 향후 5 년 동안 군부에 지속적인 압박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여 자신들이 겪을 위기를 미리 제거하는 차원에서 쿠데타를 일으킴. 수치 고문이 군부를 정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함. ■

■ **배진석**_미국 텍사스대학교(오스틴) (University of Texas, Austin)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민주화와 신생 민주주의 맥락에서 선거, 정당, 여론 등이다. 동아시아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서 2013 년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ADN), 아시아민주주의연구네트워크(ADRN) 창립 당시 실무를 담당한 바 있다.

■ **손열**_EAI 원장,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시카고대학교 정치학 박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원장과 언더우드국제학부장, 지속가능발전연구원장, 국제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였고, 도쿄대학 특임초빙교수, 노스캐롤라이나대학(채플힐), 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 방문학자를 거쳤다.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2019)과 현대일본학회(2012)을 지냈다. Fulbright, MacArthur, Japan Foundation, 와세다대 고등연구원 시니어 펠로우를 지내고, 외교부, 국립외교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자문위원, 동북아시아 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전공분야는 일본외교, 국제정치경제, 동아시아국제정치, 공공외교. 최근 저서로는 Japan and Asia's Contested Order (2019, with T. J. Pempel), Understanding Public Diplomacy in East Asia (2016, with Jan Melissen), "South Korea under US-China Rivalry: the Dynamics of the Economic-Security Nexus in the Trade Policymaking," (The Pacific Review 2019(32):6), 『한국의 중견국외교』(2017, 공편) 등이 있다.

■ **장준영**_서강대에서 동남아학과 정치학 석사(2003)를 취득, 미얀마 군부 연구로 한국외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2009)를 취득했다. 주요 저서로는 『미얀마 외교정책의 변화와 주요국과의 관계』, 『미얀마의 정체경제와 개혁개방: 성과와 과제』, 『하프와 공작새: 미얀마 현대정치 70년사』, 『언어 평등 미얀마어 첫걸음』 등이 있다. 주요 일간지를 비롯하여 다수의 언론 매체에 미얀마 관련 기고를 꾸준히 하고 있다.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책임연구원, 북벙골만 연구단 연구교수, 인도연구소 연구교수를 거쳐 현재 미네르바 교양대학에서 재직 중이다.

■ **정한울**_고려대에서 정치외교학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한국리서치 여론본부 전문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외교안보센터 부소장, 사무국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선거와 세대정치, 국가정체성과 안보인식, CSR 분야 조사연구 등이다. 주요 논저로는 《20 대 남자》, 《보편적 기본소득제에 대한 한국인의 정책선호》, 《한국인의 '신안보' 인식: 변화와 지속성》, 《한국 사회의 '갑질' 문화에 대한 경험적 연구》 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 전주현**_EAI 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04) jhjun@eai.or.kr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AI 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 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 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 호 (을지로 4 가 삼풍빌딩)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